



ESG 대출 글로벌 최우수 은행 · 단기투자상품 글로벌 최우수 은행

세계가 인정한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CEO REPORT

CEO STORY

현용길 일진알텍(주) 대표

가장 쉽고 안전한
알루미늄박 기술의 가능성





COVER STORY

일진알텍(주)은 알루미늄박 기술력으로 성장해 해외시장까지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기업이다.



<중소기업 CEO REPORT> 지난호 보기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SPECIAL THEME

- 04 **THEME ①**
트럼프노믹스 2.0 개막... 주요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 08 **THEME ②**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국제정세, 한국에 미칠 영향은?



24 **GLOBAL ISSUE**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악순환, 그리고 트럼프의 귀환

28 **Trend Pick**
인구고령화와 연금개혁의 세계적 동향

30 **INDUSTRY REPORT**
2025년 경제전망: 불안과 불만이 혼재된 경제

34 **in FUTURE**
우리의 미래 생활을 결정할 기술, 웨어러블 로봇

38 **MONTHLY INSIGHT**
인적 정보를 활용하라! 선지자승(先知者勝)

42 **about TAX**
우리 기업 주식가치 평가하는 방법



44 **about LABOR**
직원 퇴직 시 주의할 점은 무엇?

46 **CEO툰**
중국 '자수성가의 신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48 **ECONOMIC REVIEW**
한 눈에 읽는 경제 동향

50 **IBK SUPPORT**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ESG-산업안전 자가진단 Tool' 출시 안내

12 **CEO STORY**
현용길 일진알텍(주) 대표
가장 얇고 안전한 알루미늄박 기술의 가능성

18 **IBK & START-UPS**
김장호 대표, 이현준 대표
조광묵 대표, 이준호 대표

22 **IBK EXPLORING**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발행일 2024년 12월 11일(통권 237호) 등록번호 서울중 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김규섭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가) Tel 02-729-6385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제작 경성문화사(02-786-2999)

※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비매품

2025년 <CEO리포트> 발송대상 개편 안내

항상 <CEO리포트>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CEO리포트>는 2025년부터 점진적인 웹진 전환에 따라 실물잡지에 대한 발송대상 개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잡지를 실물로 받아보고 싶으신 경우 IBK경제연구소(ibktax709@ibk.co.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희 <CEO리포트>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감사드립니다.



트럼프노믹스 2.0 개막... 주요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직권하게 되면서 지구촌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지난 임기보다 더 독해져 돌아온 트럼프노믹스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알아본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후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올버니
캠퍼스(SUNY)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미유럽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더 강력해져 돌아온 트럼프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를 외치며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전직 대통령으로 사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며 다시 한 번 백악관의 주인으로서 미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번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에는 경제적 요인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가솔린 가격은 대선 레이스 중반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현직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 대한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번 대선 역시 직전 202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러스트벨트 3대 경합주^{펜실베이니아, 미시건, 위스콘신} 표심이 대통령 당선자를 결정했다. 2020년 대선을 통해 바이든에게 승리를 안겼던 앞선 3개 주가 올해 대선에서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합주로서의 진가를 어김없이 보여준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정책 방향과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2기 출범, 무엇이 달라지나

먼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망해 보면 일방적 관세 부과 조치의 부활이 예상된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시기 1974년 미국 무역법 201조를 근거로 세탁기와 태양광 관련 수입품에 셰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또한 트럼프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도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201조 셰이프가드 조치는 특히 미국기업 월풀^{Whirlpool}과 수니바^{Suniva}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해외 수입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중대한 피

해가 발생했다는 청원서를 보낸 후 조사가 개시됐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미국 기업의 외국 대미 수출 기업에 대한 셰이프가드 청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의 적법성을 두고 제기된 소송에서 미국 국제무역법원^{ITC}은 “대통령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데 매우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라고 판결하며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1기 행정부가 232조 관세를 적용했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은 물론 당시 결국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자동차 품목까지 관세 부과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앞서 언급한 과거 관세 부과 조치의 부활 외에도 새로운 관세 수단 활용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예로 우선 미국의 대세계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10% 부과 조치를 꼽을 수 있다. 보편관세 정책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사용된 적 없으나 과거 닉슨 행정부 시기였던 1971년에 ‘경제안정법^{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1970}’을 근거로 약 4개월간 10%p의 보편관세가 부과된 전례가 있다. 트럼프가 만약 전 세계 수입품에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이와 유사한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을 법적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지만 동 법에 요건으로 포함된 국가 비상사태를 어떻게 규정할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트럼프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이하 TRTA}’ 제정을 통한 관세 부과 조치다. TRTA는 대미 교역국이 미국을 상대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다. 사실 TRTA는 트럼프가 올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새



롭게 제시한 공약은 아니며, 이미 1기 행정부 시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법안명만 다른 '미국상호무역법 USFTA: U.S. Reciprocal Trade Act'이 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 의회에서 논의가 좌초되며 본 회의 표결까지 가는 데 실패했으나 2025년부터 새롭게 회기가 시작되는 119대 연방 상·하원 의회 다수당을 공화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TRTA는 재차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 강경 정책 시행될 것

미국 통상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중정책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면 이미 올해 미국 대선 전부터 트럼프나 해리스든 누가 당선되는지에 관계없이 중국에 대한 강경한 통상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 예상된다. 특히 관세 부과 조치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백악관 재임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중국 수입품에 대한 전방위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을 통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당 공약은 2016년 트럼프가 첫 대선에 출마했을 때 내놓은 공약과 상당히 닮았다. 당시 트럼프는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으며 중

국산 수입품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미국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대중국 수입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트럼프가 공약한 대중국 최대 관세율이 실제 부과될 때는 25%로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했을 때 대중국 관세율을 45%까지 인상할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트럼프가 301조 대중국 관세 조치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 미국의 전체 상품 수입에서 대중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1.6%에 달했다. 2023년 기준으로 해당 비중은 13.3%까지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중국산 수입품은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충분한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최대 25%의 301조 대중국 관세가 부과된 이후 미국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해당 관세 인상분을 떠안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2018년 때보다 훨씬 높은 대중국 관세를 부과했을 경우 자국 수입업자들이 1기 때와 마찬가지로 관세 부담을 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므로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자국 산업 보호 기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超黨的) 법안인 '반도체와 과학법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트럼프는 보조금보다는 관세 부과를 선호하기 때문에 특히 해외 반도체 분야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재생 에너지 인프라 투자 및 제조, 전기차를 비롯한 청정차량 구입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이하 IRA'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기후변화 위기 자체를 날조된 주장이라고 비난해 왔다. 게다가 IRA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패키지 법안 만큼 동 법을 전면 폐지하거나,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중 하나인 '해외우려집단' 규칙 강화 등과 같은 세부 시행규칙을 수정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노믹스 2.0에 대한 한국 방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상기와 같은 정책 추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트럼프는 미국을 상대로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국가에 강한 통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 그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나게 된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초부터 시작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보다는 대미 수입이 확대됨으로써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늘어났다는 점이 하나의 예시다. 최근 미 연준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돌아섬에 따라 달리는 장기적으로 약세 전환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자연스럽게 축소될 전망이다.

또한 바이든 1기 행정부 시기 주요 산업 분야(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에 속한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이뤄지면서 미국의 관련 대(對)한국 중간재 및 자본재 수입이 확대된 것도 무

역수지 적자를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다. 이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는 물론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점을 충분히 어필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더불어 한국의 주요 산업 분야 대미 투자 이후 한국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점진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설득 논리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 수출통제의 경우 트럼프는 자신의 1기 행정부 조치는 물론 바이든 1기 행정부의 조치를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네덜란드나 일본과 같은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시행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달리 트럼프는 미국이 관리하는 일방적이고 양자주의적인 수출통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네덜란드나 일본에 다자간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적격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 지위를 부여받아 미국의 중국 첨단반도체 제조시설 수출 통제 조치를 면제받고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 지위를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상 메모리 및 파운드리 분야에 강점을 갖는 한국의 위상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재차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반도체 기업의 미국 내 대규모 시설투자로 인해 미국 경제에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자료를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로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국제정세, 한국에 미칠 영향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한·미 관계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임기 동안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을 내걸고 국제 질서를 뒤흔들며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을 위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은 만큼 재집권을 통해 국제 정세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엄태운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대우교수

미국 Pace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보스턴총영사관 영사와 주미대사관
참사관을 역임했다. 현재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교수 및
아주경제신문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다.

트럼프 2기 출범, 한·미 관계에 영향 미쳐

미국 대선이 트럼프 승리로 끝나며 '마가MAGA'다시 미국을 위태하게'를 외치는 트럼프 2기 정부가 2025년 1월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재집권은 세계 경제·안보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며, 세계 각국은 트럼프 당선자가 구상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국제안보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중동에서는 가자 전쟁이 진행 중이고, 다른 지역에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전개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외정책 핵심 키워드는 MAGA,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트럼프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국 이익을 중시하는 정책에 몰두할 것이며, 동맹국들과도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어떠한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가장 큰 이슈다. 트럼프는 1기 정부에서 보복관세를 활용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중국에 60~100%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에도 10~20% 보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앞으로 전 세계가 보호주의 무역 장벽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수출에서 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이하 IRA)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해 IRA·반도체 지원법을 무효화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정책에 발맞춰 미국에 전기차·배터리·반도체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손실을 보게 된다. 현재 트럼프 캠프의 정권인수팀에서 IRA 보조금 폐지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11

월 14일 미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 했으며, 이에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게 됐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2기 정부 간 주요 협상 과제가 될 것이다. 윤 정부는 바이든 정부와 지난 10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이하 SMA)을 체결했으나 트럼프 당선자가 그동안 한국·일본·나토국가 등 우방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주장해 왔기에 한국은 트럼프 2기 정부와 SMA를 놓고 재협상할 준비를 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구축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트럼프가 다자주의를 배격하고 고립주의 성향을 갖고 있으나 3각 안보협력 구도는 미국의 대외 정책 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인 만큼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본다. 11월 7일 트럼프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 해군 전력을 위해 조선업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했다'고 한다. 고무적인 일이다. 한·미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한편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트럼프 2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은 지난 30년여간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

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이하 ICBM) 개발 고도화에 주력해 왔으며,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이에 한·미 정부는 한·미핵협의그룹(NCG)을 발족해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트럼프는 1기 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한 바 있으며, 두 차례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국을 패싱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한·미 간에는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제를 확보해 의견일치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북한 간 관계도 변화 필요해

향후 미·북 관계가 어떻게 변화될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미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도발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시찰하고 ICBM 기지 앞에서 지휘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으며 신형 ICBM인 '화성-19형'을 발사했다. 지난 10월 국가정보원은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북한군 약 1만 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돼 교전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을 근거로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했다. 러시아는 북한까지 끌어들여 우크라이나와 서방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연간 수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얻을 것이며, 핵·ICBM·군사정찰위성 등 군사기술을 이전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북한은 트럼프 2기 정부와 미·북 정상회담을 또다시 개최해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과연 트럼프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두고 볼 문제다.



트럼프 2기가 풀어야 할 과제 산재해

트럼프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국제분쟁을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짚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을 마주하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핵·ICBM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자 시절부터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그의 최우선 관심은 두 개의 전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민주주의 가치와 다자주의를 신봉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 나토국가들과 협력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군수물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MAGA, 고립주의, '힘에 의한 평화'를 지향하고 있어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러시아 푸틴과 우크라이나 간 중재를 통해 종전을 추진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지에 따르면 11월 7일 트럼프가 푸틴과 통화하면서 "확전하지 말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트럼프는 친이스라엘 성향을 띤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와 골프친구인 유대계 부동산 사업가 스티브 워트코프를 각각 주이스라엘 대사와 중동특사로 지명했다. 이는 중동전쟁이 확산하지 않도록 조율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가자전쟁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으로 커지게 될 경우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해 세계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경제도 중동지역의 원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두 개의 전쟁을 평화롭게 마무리한다면 국제원유·원자재·곡물 시장이 안정돼 한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2기, 독일까? 약일까?

세계패권국인 미국이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관심 순위와 국가 간 갈등구조의 파급 영향에 달려 있다. 트럼프는 2기 정부는 출범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을 끝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제거한 이후에 북한 핵 문제를 놓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것이다. 중동 지역에서는 일단 가자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 성향으로 이란과의 분쟁이 다시 촉발될 가능성은 있다. 그 이유는 네타냐후가 '중동에서 이란의 패권주의가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전쟁이 종식돼 국제정세가 안정돼도 트럼프 2기 정부의 MAGA,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여전히 한국경제를 포함한 세계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트럼프의 재집권은 한국에 부정적 측면이 많지만,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돼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보·경제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기회로 반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과 IRA 폐지가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인 만큼 우리 기업들은 품질향상, 기술혁신, 소비자 니즈 충족 등을 통해 그 돌파구를 찾는 데 더욱 힘을 모아 야 한다. 



현용길 일진알텍(주) 대표 가장 얇고 안전한 알루미늄박 기술의 가능성

일진알텍은 알루미늄의, 알루미늄을 위한, 알루미늄에 의한 기업이다. 국내 알루미늄 사업을 이야기할 때 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는 이곳은 오직 기술력으로 성장해 해외시장까지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다. 기술과 사람을 가장 높은 가치로 삼고 있는 현용길 대표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창업

2007년 7월 11일



본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 328-4



인원

44명



주요사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산제품 제조업



2023년 매출액

352억 원



2024년 매출 목표

1,000억 원
(자회사 2곳 포함)



알루미늄은 나의 운명

일진알텍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매우 친숙한 기업이기도 하다.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봤을지라도 이곳에서 만든 쿡킹호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써 봤을 히트 상품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진알텍은 현용길 대표가 1986년 알루미늄 유통사업을 시작한 것이 모태가 됐다. 제주 출신이던 부모님께서 4·3사태를 피해 무작정 상경했기에 딱히 연구도 기댈 데도 없는 어려웠던 시절, 현 대표는 당시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결심 하나로 젊은 나이에 창업한 것이 그 출발이었다. 1990년에 개인사업자로 매출 90억 원을 올릴 정도로 승승장구했지만 현 대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유통이 아닌, 제조 분야로 눈을 돌렸고 2007년 넥센알루미늄을 인수·합병해 오늘날의 일진알텍을 만들었다.

“현재 일진알텍은 식음료 및 약품, 산업용포장재를 비롯하여 각종 생활용품, 전기·전자, 냉난방기자재, 차량 및 항공 등 운송자재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할 만한 제품이라면 일반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쿡킹호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제품으로 기술이 부족하다면 균일한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고 안전이나 완성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 수준이 떨어지는 제품이지요.”

일진알텍의 알루미늄박 기술은 국내를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다. 알루미늄박은 두께에 따라 박박(6~9 μm), 약박(12~50μm), 후박(52μm 이상) 등 크게 3종류로 분류되는데 이는 대형 알루미늄 원료를 압연, 분리·절단, 열처리 등 여러 단계의 가공과정을 거쳐 완성시키는 것이다. “단계별로 두께가 얇아질 때 기술력이 드러납니다. 두께가 고르지 못하면 원단이 끊어지고 두께가 일정하지 못하며 원단 평활도가 나빠져서 제품이 균일하게 생산되지 않거든요. 저희는 생산 시 모든 공정을 자동 정밀측정해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박 두께를 최대 6μm까지 얇게 만드는 데 이 같은 기술은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만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오직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다

이 같은 일진알텍의 품질은 까다로운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그 지표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 성공이다.

“미국은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FDA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기 때문인데, 저희만 해도 샘플을 들고 미국을 몇 번이나 오갔어요. 일진알텍은 순도 99.3% 이상의 순수 알루미늄만을 만들고 압연에 사용되는 압연유는 사전 정제 후 사용해 보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쿡킹호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알루미늄 압연 시 발생하는 카본 가루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인데, 당연히 미국 FDA 승인을 받을 때도 알루미늄 표본에 카본 가루의 존재 유무, 스퀘어 미터당 핀 홀이 몇 개나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받았습시다. 이 덕분에 저희는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어요. 중국 수입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 같은 품질 관리는 일진알텍의 제품을 해외에서도 찾게 만들고 있다. 현재 미국·독일·폴란드·이탈리아 등은 물론 동남아 시장에도 수출하고 있으며, 2022년 1000만불 수출의탑 수상에 이어 2024년 2000만불 수출이 예상된다.



현재 일진알텍은 향후 신규 압연기 증 설을 통하여 보다 지속적인 수출 확 장을 노리고 있다.

‘기술’과 ‘사람’, 두가지 가치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꿈꾸다

혹자는 알루미늄이라는 소재에 대해 불안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자신 있는 소리를 낸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거의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며 흡수됐다 하더라도 신 장에서 대부분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된 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 소하기 위해 높은 순도의 알루미늄 원 료를 생산하는 것도 타사와는 구별되 는 일진알텍만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4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오

직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온 현 대표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자 그 가 서슴지 않고 4가지를 꼽는다.

“제일 먼저 우리 직원들의 안전, 그다음으로 늘 최적의 컨 디션을 갖춘 기계, 세 번째로 최고의 부자재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직원 모두가 회사는 곧 나이고, 나는 곧 회 사라는 마인드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현 대표는 인재, 즉 직원에 대한 애정이 아주 각별 하다. 44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작다면 작은 기업이지만 직원들 평균 근무연수가 25년 이상 된다는 것은 시사하 는 바가 크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대표님들의 고민이 직원들 의 이직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번 입사한 직원들 의 이직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이건 저희 제품의 공정이나 기술개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숙련공들의 축적된 노하우는 곧 높은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4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단 하

루도 월급이 낮은 적이 없고, 단 한 해도 월급 인상을 거 른 적이 없으며, 정리해고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로 직원 들과 패밀리 정신으로 함께 걸어 온 현 대표. 그는 지금 도 직원들에게 “건강만 허락한다면 70세까지 다니자”라 고 말하고, 병으로 인해 내는 사표를 휴직으로 처리해 기 켜기 다시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오너다.

2024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 현 대표는 새로운 미래를 계획 중이다. 알루미늄을 이용해 보다 세분화된 사업으 로 영역을 확장해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알루미늄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포장용 필름 공급, 알 루미늄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 및 생산은 일진알텍의 차세 대 주력 상품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2027년까지 약 500 억 원을 투자해 2차전지 사업에도 뛰어들 예정이라니 앞 으로 5년 안에 일진알텍의 분위기는 확 달라질 듯하다.

“직원들을 위한 꾸준한 복지 정책, 기업의 연속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시대 변화와 니즈를 수용하는 발빠른 대비 등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힘으로 성장하고, 이제 그 역량을 좀 더 큰 시장에서 펼치기 위해 다시금 날갯짓을 시작한 일진 알텍. 글로벌 시장에서 펼쳐질 이곳의 미래가 더없이 기 대된다. 📈



History

- 2007
 - (주)넥센산기남양공장 인수
 - 넥센알루미늄(주)사업개시
- 2008
 - 매출 164억원 달성
- 2009
 - 상호변경 일진알텍(주)
- 2010
 - 신공장건물 신축공사개시
- 2011
 - 신공장이전 (용인시 이동면 시미리 328-4)
- 2017
 - 미국 FDA 승인 획득
 - ISO 9001 취득
- 2019
 - 매출 258억원 달성
- 2022
 - 매출 511억원 달성 (수출의탑 1000만불탑 수상)



㈜나노바이오시스템, 김장호 대표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바이오헬스케어

나노바이오시스템은 '나노소재-줄기세포' 원천기술을 활용한 첨단 재생의료기기 및 코스메틱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다. 세포 분화 및 조직재생에 관련된 생체 내 세포외기질^{ECM}의 나노구조를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나노리소그래피' 기반의 조직재생 플랫폼 원천기술로 손상된 신체의 조직을 재생시키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나노바이오시스템은 '재생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난제의 질문에서 출발한다. "바이오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원천기술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이자 전남대학교 교수로서 수십 년간 해당 분야를 파고들며 자연스럽게 보유하게 된 다양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을 선도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 합니다." 과거 줄기세포 분화촉진법 연구팀에 속해 나노소재와 줄기세포를 활용한 손상된 신체 조직과 장기의 재생 연구를 진행해 온 김장호 대표. 그는 글로벌 시장의 성장과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등 재생의료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보고 2017년 나노바이오시스템을 창업했다. 현재 나노바이오시스템은 국내외 최초로 조직 재생 나노기술이 적용된 치아조직재생유도제(4등급 의료기기), 고막재생치료제, 피부재생치료제를 개발해 미국 FDA에 허가를 신청해 놓고 있다.

"연골 및 힘줄재생치료제 전임상 결과가 바이오공학 최고 권위 학술지인 <바이오머터리얼즈^{Biomaterials}>에 게재됐어요. 또한 세계 최초로 '나노 세포케어' 기술을 활용한 코스메틱 제품인 셀로브릿지^{CELL-RO BRIDGE} 나노패치 및 스킨부스터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나노바이오시스템을 대표하는 첨단조직재생 의료기기 및 코스메틱 제품은 3가지다. 먼저 '만성고막천공 치료제'는 비수술적 방법으로 나노 소재를 활용해 만성고막천공을 치료할 수 있는 국내외 최초의 제품이다. 본 질병 치료에 관한 20여 년의 연구 결과가 담긴 이 제품은 1차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또 첨단재생 피부패치 '셀로브릿지 나노패치'와 첨단재생 젤라틴 나노파티클 스킨부스터로 '셀로브릿지 GNP 재생앰플'은 전 세계 유일의 나노바이오시스템 원천기술이 적용된 독보적인 피부재생 제품이다.

"급성장하는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에서 첨단재생의료기기 및 의약품 개발을 넘어 첨단재생 코스메틱 분야로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회사, 투자하고 싶은 회사, 입사하고 싶은 회사를 그린다. 김장호 대표. 앞으로 광주광역시는 물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우뚝 서는 나노바이오시스템을 기대해 본다.

꽃이 피면 언젠가는 지듯이 우리네 인생도 어쩔 수 없이 자연의 소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세븐포인트원은 숙명적인 고령화의 과정에서 인생의 하반기를 가장 푸를 수 있도록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현재 고령화와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중 치매와 우울증 관련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치매는 고령화가 주요 요인인 질병으로, 적절한 시점에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매'는 조기 진단으로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 세븐포인트원의 치매 진단 솔루션인 '알츠윈^{AlzWIN}'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며 강력한 분석 성능을 갖추고 있다. 특히 1분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테스트는 어르신도 쉽게 따라올 수 있으며, 수차례 임상 연구와 현장 테스트를 통해 증명된 분석 역량은 실제 현장에서 치매 고위험군 8,800여 명을 찾아내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대통령 표창과 CES 혁신상 수상 등의 영예로 이어졌고, 국내에서의 인정을 넘어 일본과 미국의 현지 지자체 및 기업과의 협업으로 이어졌다. 이현준 대표는 가상현실^{VR} 기술 관련 사업을 구상하던 중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20대 상경한 이후 한 번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에 VR 기기로 고향 모습을 보여드렸던 경험이 세븐포인트원 회상 요법의 모티브가 됐다. 이후 당시 봉사활동에서 만난 공동창업자들과 치매 분야에 집중해 사업을 본격화했다. 특히 치매 관련해 오래 연구해 온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의 협업은 천군만마가 됐다. 치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임을 강조하는 이현준 대표.

"전 세계적으로 치매추정 환자 중에 숨어있는 치매 환자 비율이 8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회복의 기회는 줄고 비용은 늘어만 가죠. 세븐포인트원은 치매 고위험군이 적절한 시점에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고령화는 인구 구조상 정해져 있는 미래이기에 그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에 한국에서의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일본과 미국 등지의 글로벌 확장을 진행 중인 이현준 대표. 그는 훗날 세븐포인트원이 사람을 치유하는 기업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세븐포인트원, 이현준 대표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세븐포인트원은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치매와 우울증 등 고령화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다. 사명인 '세븐포인트원'은 1년 중에 가장 푸르른 날이자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7월 1일'의 상징적 의미를 기업의 아이덴티티로 삼는다.



- 주요 기술
AI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
- 주요 제품
치매 진단 솔루션^{AlzWIN}, VR 회상 요법 솔루션^{Sentents}
- 홈페이지
<https://sevenptone.com>



- 주요 서비스
충간소음 저감 솔루션
- 주요 제품
충간소음 차단 바닥구조, 바닥 시공 품질검사 솔루션, IoT 충간소음 저감 솔루션
- 홈페이지
www.metainnotech.com

메타이노텍, 조광목 대표

충간소음 저감 솔루션

메타이노텍은 충간소음 없는 평온한 삶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기존의 바닥구조 개발 방식 접근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혁신적인 시도는 공동주택 바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충간소음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분쟁과 다툼에 '발망치'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으며, 누군가는 '살인'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 메타이노텍은 공동주택의 충간소음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충간소음 관련 자재 제조회사 출신들이 중심이 돼 설립한 회사다.

“우리 회사의 솔루션은 크게 충간소음 차단 바닥구조, 바닥 시공 품질 검사 솔루션, IoT 기술 활용 데이터 분석형 충간소음 저감 시스템, 그리고 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적화된 충간소음 대응 수단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바닥구조 개발은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아이템입니다.”

메타이노텍의 바닥구조는 충간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완충재 및 몰타르층의 두께와 물성의 조합을 찾아 차음 성능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IoT와 인접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의 충간소음 저감 솔루션을 개발해 현재 메이저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시공 품질 검사 솔루션은 기존 충간소음 측정 방식 대비 최대 80%의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맨 슬라이브에서도 측정이 가능해 건설 중에도 사전 시공 품질 관리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지요”

조광목 대표는 고질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업성도 확보했다는 점에서 수많은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에 초기 신용보증기금의 1억 원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민간투자기관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으며, 팀스R&D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에도 지원해 선정됐다.

“충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입주자들과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메타이노텍의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에 아파트가 많은 아시아권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로의 진출도 염두에 두어야겠지요”

메타이노텍은 충간소음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다. 공인된 기술력으로 입주자들을 충간소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나아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업, 새로운 기술 개발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바야흐로 숏폼의 시대다. 마케팅의 주요 수단으로 숏폼을 활용한 마케팅이 중요해졌지만, 영상을 제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브이플래닛이 나섰다. 영상 제작부터 SNS 업로드까지, AI로 한 번에 관리하는 숏폼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이 그것.

“더브이플래닛은 마케팅용 숏폼 자동제작 시스템인 ‘브이플레이트 VPLATE’와 AI기반 유튜브 쇼츠 자동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숏츠 팩토리 SHORTS FACTOR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I가 10분 만에 완성하는 SNS 영상 마케팅은 마케터가 없는 소규모 셀러는 물론, 솔루션이 필요한 대행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도움을 줍니다.”

먼저 브이플레이트는 온라인 셀러 및 오프라인 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자동화 솔루션이다. 판매하는 제품이나 운영 중인 비즈니스의 페이지 URL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사용자의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숏폼 마케팅 자동화를 제공해 준다. 또 숏츠 팩토리는 멀티모달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롱폼 영상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해 핵심 구간을 추출하고, 디자인 자막 및 타이틀을 적용해 숏츠 영상을 제작해준다.

대학 1학년 시절부터 창업했다는 이준호 대표의 가장 큰 난제는 마케팅이었다.

“마케팅에서 성과를 내려면 대량의 콘텐츠를 시장에서 실험해 보고 반응이 좋았던 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다시 시장에 내놓는 방법이 필요한데, 리소스가 적은 회사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의하자 답이 보였죠”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스스로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지금껏 회사를 이끈 원동력이다.

“여타 네거티브 요소에도 불구하고 숏폼 시장은 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 컷편집, 그 이후에는 기존 영상 없이 AI 분석만으로도 숏폼을 생성해 내는 서비스를 고려 중입니다.”

숏폼에 있어서만은 국내를 넘어 세계 넘버 원이 되고 싶다는 이준호 대표. 그 단계에 도달해 시장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더브이플래닛의 행보를 응원한다. 

더브이플래닛, 이준호 대표

숏폼 자동화 마케팅 플랫폼

더브이플래닛은 소규모 셀러를 위한 AI 기반의 숏폼영상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을 개발하는 애드테크 스타트업이다. 대표 서비스로는 마케팅용 숏폼 자동제작 시스템 ‘VPLATE’와 기존 영상을 분석해 1분 내외의 쇼츠로 자동 제작해 주는 ‘SHORTS FACTORY’가 있다.



- 주요 서비스
숏폼 자동제작 시스템 VPLATE, 영상분석 숏폼 제작 SHORTS FACTORY
- 시장 규모
약 52조 원(해외)
- 홈페이지
<https://vplate.io/>

IBK가 만난 이달의 기업들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참여기업

기술과 열정으로 미래를 설계하다

연필심이나 다이아몬드, 정수기 속 활성탄 필터 등에 사용되는 탄소소재는 가벼우면서도 열에 의한 변형이나 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 친환경 소재로도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동차, 전자, 항공우주 분야의 부품으로도 널리 사용되며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다. 극동셀테크는 국내 기업 최초로 기계구조용 피치 바인더 탄소소재 개발에 성공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강자로 자리 잡았다.

극동셀테크(주)



탄소소재와 씰링 분야 선두주자

1999년 설립된 극동셀테크는 씰링과 탄소소재 전문 제조업체로, 가장 단순한 메커니컬 씰에서 첨단 탄소소재 부품까지 기술과 열정을 담아내며 국내외 산업에서 독보적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산업용 메커니컬 씰, 자동차용 탄소소재 부품, 모터 보호장치 등이 있으며, 국내 최초로 기계구조용 피치 바인더 탄소소재를 개발해 관련 특허 30건을 보유하고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도 했다.

특히 설계부터 생산까지 풀라인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핵심 소재 개발을 통해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중이다.

미래를 위한 성장 전략

25년 동안 기술과 열정을 담아내 온 중심에는 이영순 대표의 "모두가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간결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은 경영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함께 신뢰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중이다.

극동셀테크는 2025년까지 고부가가치 제품군의 매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수입에 의존하는 모터 보호장치와 탄소 부품의 양산을 통해 국내외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 투자로 품질 우위를 확보하며 경쟁력 있는 신제품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 대표 26명과 함께 중소기업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금융비용 부담 및 인력난 등의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행장은 "오랜 기간 전통 제조업을 영위하며 경제 발전을 주도해 온 기업부터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 기업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금융·비금융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가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기술력 우수기업 발굴·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중소기업 현장간담회 참여기업

혁신으로 세상을 움직이다

산업혁명 이후 기술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됐다.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이 기술을 통해 이뤄졌고, 인류는 기술을 통해 보다 빠르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스턴기어 역시 정밀 부품으로 첨단 산업의 심장이 돼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회사 중 하나다.

(주)이스턴기어



글로벌 기술력으로 승부

이스턴기어는 글로벌로이드(장구형) 워기어를 적용한 고정밀 감속기를 전문적으로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미국 특허와 미국 기어 제조자 협회^{AGMA} 기준을 기반으로 산업용 로봇, 자율주행 차량, 물류 자동화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산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단순한 기능을 넘어 효율성과 내구성을 겸비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품질을 자랑한다. 특히 한국에서 유일하게 초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워기어를 제작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은 이스턴기어의 자부심이자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 모든 기술적 성과는 'Putting Efficiency into Motion'이라는 슬로건 아래 효율성이라는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비롯됐다.

사람 중심의 혁신

이스턴기어의 기술력 뒤에는 강력한 경영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곽유현 대표는 "기술은 사람이 창조하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념 아래 직원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믿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스턴기어는 2025년까지 <CES 2025>와 같은 세계적 무대에서 기술력을 선보이고, 소형 고성능 감속기와 액추에이터를 개발해 로봇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 필수적인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고객에게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닌 신뢰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Check Point

전 세계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이슈 중 눈여겨볼 뉴스를 알아본다.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간 휴전 전격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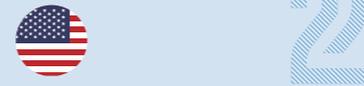
11월 26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일시 휴전안이 전격 타결됐다. 이로써 작년 10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포성이 멎게 되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는 것, 또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휴전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헤즈볼라가 합의를 깬다면 우리는 이들을 공격할 것”이라면서도 “(휴전 이후에도)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이해 속에 레바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는 60일간 일시 휴전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담겼다.

10곳

11월 1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5G+산업인터넷’ 융합 응용 시범도시 건설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난징, 우한, 칭다오 등 10개 시범도시에 산업 클러스터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선도 효과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트럼프에 찍힐라... 美기업들 ‘ESG’ 정책 줄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석유 등 화석 연료 부흥을 외치자 월가가 친환경 관련 용어부터 폐기를 추진 중이다.

11월 24일 미국 언론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월가 친환경 부문 투자 매니저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친환경 투자의 브랜딩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용어 변경을 통해 친환경 분위기를 최대한 제거하자는 취지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당선인의 반 친환경 정책 때문이다. 그는 기후 변화를 두고 ‘사기’와 ‘거짓’이라고 정의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할 뜻을 밝혔다. 이는 친환경 투자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투자자들은 풍력이나 태양광 등 ESG와 밀접한 종목의 주식들을 팔아치웠고, 월가 친환경 투자 업계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에너지장관에 석유기업 리버티에너지의 크리스 라이트 CEO를 지명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40만 루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근위대 장병의 보너스를 40만 루블(약 541만 원)로 인상했다. 이번 보너스는 최소 1년 이상 국가근위대와 계약을 체결한 장병에게 지급된다.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25%, 중국 상품에는 추가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20억 유로



그리스가 이스라엘과 20억 유로 규모 ‘아이언 돔’ 개발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돔을 개발하기 위한 이번 협상은 장기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자국의 군대를 현대화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전망된다.

‘원유 대박’ 수리남 “국민 모두와 이익 나눌 것”

105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 규모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한 수리남 정부가 개발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수리남 대통령실에 따르면 찬드리카퍼사드 산토키 수리남 대통령은 “모든 수리남 국민은 향후 석유 로열티로 750달러(약 105만 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지분에는 7%의 연이율이 설정될 예정이며, 미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 기업가와 젊은이들은 올바른 교육과 훈련을 바탕으로 조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수리남은 이웃 나라인 가이아나와 함께 풍부한 해상 원유 매장량으로 주목받는 국가로, 지난 10월 프랑스의 석유 및 천연가스 회사 토탈에너지는 수리남 해안에서 105억 달러 규모의 유전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숨 막히는 인도 뉴델리... 대기오염, 기준치의 50배 넘어

인도 수도 뉴델리 당국은 11월 18일 대기오염이 기준치의 50배를 넘자 학교를 폐쇄하고 모든 건설 공사를 중단했다. 이날 뉴델리에는 치명적인 스모그가 고층 건물들을 뒤덮었고, 가시거리가 너무 짧아 비행기 운항도 줄줄이 결항됐다. 또한 노후화한 디젤 차량들도 도시 내 진입이 금지되고, 모든 건설 활동은 중단되기도 했으며,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에게는 가능하면 외출을 하지 말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인도의 주요 환경 기관 SAFAR은 뉴델리의 대기오염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WHO “세계 당뇨 환자 8억 명, 32년 만에 4배 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22년 기준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8억 명에 달하며, 이는 1990년의 4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인구 10명당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셈이다. WHO에 따르면 2022년 18세 이상 성인 당뇨병 환자는 8억 2,800만 명으로, 1990년 1억 9,800만 명에 비해 6억 3,000만 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당뇨병 유병률도 14%로 높아졌다.

우크라이나와 한반도의 악순환, 그리고 트럼프의 귀환



10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북한의 러-우전쟁 개입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북한군 파병은 곧 제3국의 전쟁 개입으로, 확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부터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전망이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했으며,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축·반핵·평화체제에 전착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리영희상을 수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은 한반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이 전쟁에 강력한 지지를 표해 왔다. 한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면서 서방 주도의 대러 경제 제재에 강력히 동참해 왔다. 또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한국과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요 무기 공급처가 됐다. 2023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이 한국에서 제공받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포탄량이 모든 유럽 국가들의 공급량보다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의주시하면서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던 러시아는 급기야 북한과 손잡았다. 작년 9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협력을 본격화했는데,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이다.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 주도의 단극체제를 다극화하겠다고 의기투합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급기야 올해 6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우크라

이나 전쟁을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을 비롯한 군사협력의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있다.

핵 기반 다른 양상 펼쳐져

유라시아 동쪽 끝에 있는 한국과 북한이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군사 개입의 수준을 높이거나 높이려고 하는 낯설고도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까이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해온 ‘가치 연대’와 김정은 정권의 ‘반미 연대’가 우크

라이나에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다량의 무기와 대규모의 병력을 지원할 수 있었던 데는 핵무장에 따른 자신감이 깔려 있다. 이는 러시아의 달라진 선택법과도 연결된다. 과거의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창시국의 일원으로 핵비확산을 중시했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규탄과 제재에도 동참했었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해 주고 북한의 군사력을 제공받고 있다. 러시아의 북핵 인정과 북한의 대러 군사 지원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이 커지면서 한국의 대미 의존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됐다고 과시한다. 이는 또 하나의 교환을 낳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더 강력한 확장억제를 제공해 주고,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해주는 양상이 벌어진 것이다.

한반도 정세 불안 속 트럼프의 귀환

한반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관계가 정치·군사적 대립과 지정학적 위기의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유라시아 동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한반도 정세 불안의 가속화로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한-미 동맹과 북-러동맹이라는 ‘동맹의 정치’가 파리를 틀고 있었다. 그런데 한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지구촌에 ‘거대한 럭비공’

이 떨어졌다. 트럼프의 귀환이 바로 그것이다. 트럼프는 러-우전쟁 종식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있다. 동시에 “핵보유국 지도자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북-미 정상회담 추진 의사도 거듭 밝혀왔다.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면서 한-미동맹을 철저히 ‘거래주의적 관점’에서 다루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크라이나에서는 휴전이라도 절실한 상황이고 한반도에선 휴전마저도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휴전 체제의 안정성이 회복될수록 러-우 전쟁의 휴전 방안으로 ‘한반도식 휴전 모델(K-휴전 모델)’이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K-휴전 모델’이 러-우 전쟁 휴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한 대북정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으로 가득차고 있는 한-미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우 전쟁 종식은 트럼프의 최우선적인 대외정책 목표이고 한반도 문제 해결은 그의 변함없는 목표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인구고령화와 연금개혁의 세계적 동향

세계는 지금 연금개혁 중이다. 서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 고령화 추세가 새로운 틀의 복지제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가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로 인해 연금을 받는 인구는 증가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중이다. 세계 각국의 연금개혁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우리 연금개혁의 시사점과 대안을 모색해본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미국 럿거스대학교 정치학 박사, 유럽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다. 저서로 <복지의 원리> 등이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각국의 연금 제도는 모두 비상이 걸렸다. 우리가 다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보다 두 세대 정도 뒤늦은 1988년에야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고령사회 진입도 늦었던 까닭에 연금개혁 이슈가 이제야 떠들썩하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해 서구 선진국들은 대부분 2000년을 전후해 이미 연금개혁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지었다.

1999년 스웨덴은 소득의 18.5%, 독일은 22% 그리고 일본은 18.3%로 보험료 인상의 상한을 법으로 정했다. 젊은 세대가 끝없이 오를 보험료 인상에 공포를 느끼자 소득의 20% 정도까지만 올리고, 더 이상 보험료는 올리지 않기로 한 것이다.¹⁾

보험료 인상에 상한을 두면 정부는 늘어나는 노인들에게 연금급여액을 낮춰 지급하는 수밖에 없다. 1990년대 말, 스웨덴과 이탈리아는 사적 연금에서나 쓰는 확정기여 [이하 DC](#) 방식을 도입해 기여 [보험료](#)와



급여를 100% 연동시키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연금액이 인하되게끔 개혁했다. 2000년대 중반, 독일과 일본은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기여와 상관없이 연금액부터 약속하는 전통적인 확정기여 [이하 DB](#)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또 핀란드·네덜란드·그리스·포르투갈은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자동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다. 이런 자동조절장치의 도입은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으로 시끄러웠던 프랑스 사태에서 보듯이 연금개혁 때마다 불거지는 정치적 반대와 소요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OECD 연금개혁 선도국 사례

전보다 오래 살기에 총연금수령액이 줄지는 않는다. 하지만 매달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됐다. 또 늦은 나이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에 소득공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적립형 연금을 강화하고 있다. 적립형 연금은 인구구조 변화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후세대가 내는 보험료나 세금에 의존해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가 쌓아 놓은 연금자산을 바탕으로 연금을 받는다. 게다가 납부한 보험료



에 운용수익이 복리로 더해진다. 스웨덴은 1999년부터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적립형 프리미엄 연금에 소득의 2.5%를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하고 있다. 독일은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며 리스터 연금이라고 불리는 적립형 개인연금에 가입하도록 유인하고 있다.²⁾ 네덜란드·덴마크·스위스·호주·영국 등은 우리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적립형 기업연금의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해 임금근로자의 80% 이상을 가입시키고 있다.

최근에도 이들 OECD의 연금개혁 선도국들은 미세조정을 통해 재정안정을 기하면서도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은 강화하고 있다.³⁾ 스웨덴이 2023년부터 기초보장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66세로 올렸고, 2026년까지 67세로 올린 후 자동조절장치를 부가해 매년 평균연령 상승분의 2/3만큼 수급개시연령을 뒤로 미루는 개혁을 단행했다. 덴마크·에스토니아·이탈리아·네덜란드도 연금수급개시연령 자동인상 장치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보험료 납부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고, 연금수급개시연령은 60세에서 63세까지 높이는 개혁을 강행했다. 네덜란드는 DB 방식이었던 것을 DC형 기업연금으로 전환시키는 법을 통과시켰다. 직장 이동 시 연금의 이동성 [Portability](#)을 높이고, 기업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스위스를 제외하고 기업연금

을 준공적 연금화한 나라들은 모두 DC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캐나다는 2022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을 10% 인상해 지급하고,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도 기초연금 혹은 최저지급액을 인상해 저소득 노인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자세 가져야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보다 상당히 뒤늦은 2018년에야 고령사회 [65세 이상 14%](#)에 진입했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20%](#)에 진입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까지 독일이 36년, 영국은 50년이 걸린 일을 한국은 7년 만에 맞이하는 것이다. 연금개혁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지만, 아직 제대로 된 개혁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 연금은 축소하고, 퇴직연금 같은 적립형 연금의 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축소하고, 기초연금의 대상자는 줄이되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급여는 높여야 할 것이다. 인구 고령화를 일찌감치 맞이한 연금개혁 선도국들처럼 말이다. [▶](#)

1) 한국도 국민연금이 고갈 이후에는 온전히 후세대의 보험료 수입에만 의존해서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예상되는 필요보험료는 최고 35%를 넘게 된다.
2) 매년 소득과 상관없이 1인 175유로(약 26만 6,2000원), 부부는 350유로(약 53만 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3)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2025년 경제전망: 불안과 불만이 혼재된 경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과 달리 다가올 새해는 희망찬 미래로 가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2025년을 맞이하며 한국경제를 전망해 보고, 글로벌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망도 살펴본다.

2025년 경제는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 둔화 폭은 침체를 이야기할 만큼 깊지 않고 잠재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완만한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2025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같은 3%대 초반, 미국과 중국은 각각 2.4%와 4.8%에서 2.0%와 4.4%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2% 수준에서 내년에는 1.8~2.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실제 경제 환경은 숫자에 나타난 것처럼 안정된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수치로 표시되는 지표경기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주체 간 그리고 국가 간 체감경기의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환경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큰 불안 요인이다. 투자의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어느 나라를 투자국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투자 성과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이코노미스트

IBK투자증권 리서치본부를 이끌고 있는 경제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2025년 미국경제 전망

글로벌 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전망을 살펴 보면 미국은 경기 둔화 국면으로 접어들지만 2025년에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고용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며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지만 2025년 경제성장률은 우려보다는 양호한 2% 전후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이번 경기 확장 국면에서 설비투자나 재고의 과잉이 없었다는 점 때문이다.

투자 과잉이 없다는 것은 최근 미국 노동시장 조정이 과열됐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 경기침체에 보여주는 구조조정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축적된 재고가 크지 않다는 것은 감산 등을 통한 생산 조정 필요성이 적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계화가 종

료된 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미국을 중심으로 재구성되고 있고, 이를 반영해 미국에 투자가 몰리는 흐름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실제 경기 진폭과는 별개로 경기 흐름에 대한 불안감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금융시장에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투자자들은 작은 경제지표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장기간 주식시장 상승이 지속되며 주가 수준에 대한 부담이 누적된 것과 양적완화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지나치게 많이 풀려 있는 것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한다.

지난 1기를 되돌아보면 트럼프는 자본시장에 결과적으로는 우호적이었고, 드러난 거친 언사보다는 유연하게 정책을 시행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

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정책 변화 자체는 심리적인 불안과 마찰적 비용을 수반한다.

2025년 중국경제 전망

글로벌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흐름인데, 최근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2025년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불안과 부담의 시선으로 접근하고 있다. 2024년 중국경제는 수출 회복과 정부 지원에 기인한 제조업 투자 회복 등으로 정부 성장 목표치에 근접하는 경제성장률(4.8%)을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의 수출은 지금까지와 같은 추세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선은 트럼프의 재등장이다.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공약은 훨씬 거칠다. 60%의 대중국 관세와 함께 더 노골적인 보복과 고립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중국경제가 중대한 도전을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하나 향후 중국 수출의 새로운 걸림돌은 그동안 미국 등 선진국 규제를 회피하는 우회로가 돼 주었던 베트남이나 멕시코, 브라질 같은 우호적인 신흥국들이 중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쌓고 높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중국의 투자로 인해 자국 산업기반이 황폐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부진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중국경제에 수출 둔화가 겹친다면 성장률은 낮아지고 경제는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2025년, 다양한 변수에 잘 대처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여서 미국과 중국의 경제성장 흐름에 상당히

많이 연동되는데, 내년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4년 2.2% 수준에서 2025년에는 1.8~2.0% 수준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성장률이 둔화되기는 하지만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만큼 이 기대치를 토대로 보면 경기가 크게 밀린다고 볼 수는 없다. 우려되는 것은 이 기대치보다 하향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내수 부진이 계속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수출이 견인하는 설비투자의 낙수효과가 이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은 소비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과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재정의 역할은 내년에도 균형재정 추구에 밀려 큰 지지가 되지 못할 전망이다.

트럼프 재등장 역시 불안을 높이는 요인이다. 트럼프의 대표적 대외 정책인 관세부과와 미국 우선 보호무역은 우리나라 수출 및 무역수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 흐름은 결국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대를 하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외 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라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둔화는 수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 부진은 내년 성장에 대한 기대를 2%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약은 실제 정책과 차이가 날 수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관세 등을 통한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중국을 더 견제함으로써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할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도 있는 만큼 선입견에 의한 과도한 불안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미래 생활을 결정할 기술, 웨어러블 로봇

지난 10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펼쳐졌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로봇 다리'가 걸어오더니 알아서 사람 다리와 포개졌다. 로봇 다리와 합체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은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기술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돕자는 취지로 열리는 대회, 일명 '사이보그 올림픽'으로 불리는 제3회 사이베슬론에 출전한 한국 KAIST 팀이 해낸 일이다. 이런 것을 웨어러블 로봇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상상만 하던 기술이, 어느새 우리 눈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요훈
IT칼럼니스트

아리랑 방송 비즈테크코리아
진행자, 넥스아트 편집장, KISTEP
기술영향평가 전문위원, 한양대
IAB 자문 교수를 역임했다.

웨어러블 로봇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난감한 표정을 짓는 사람이 많다. 살면서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 보거나 쓴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써 본 사람은 없는데 이미지는 익숙하다. 영화 <아이언맨>이나 <에일리언>, <옛지 오브 투모로우> 등을 통해 많이 봐서 그렇다. 아이언맨이 입을 바로 그 로봇 갑옷, 입으면 인간의 능력을 강화하는 슈트. 그게 바로 웨어러블 로봇이다.

사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웨어러블 슈트다' 같은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형태나 용도에 따라 강화 외골격 슈트 **Powered Exoskeleton Suit**나 그냥 강화 외골격, 어시스트 슈트, 파워드 슈트, 엑소 슈트, 근력 보조 로봇 등으로도 불린다. 형태도 다양해서 동력을 쓰는 제품도 있고, 아닌 제품도 있다. 아예 탄성이 있는 천 재질로만 만들어진 제품이나 벽에 고정해서 쓰는 제품도 웨어러블 로봇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형태는 다양하지만 핵심은 하나다. 사람이 직접 몸에 입거나 부착해서 신체 능력을 끌어올리거나 보조하는 제품이다. 첫 아이디어는 산업혁명 직후인 19세기 말에 나왔다.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온갖 혁신적이거나 이상한 아이디어가 태어나던 때, 사람 몸에 기구를 부착하고 가스나 증기로 동력을 공급해 신체 활동을 돕겠다는 특허가 몇 개 출원됐다. 실제로 만들어지진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아이디어가 태어났다는 점이다. 우리가 내는 아이디어는 대부분 오래된 아이디어다. 세계 각국의 신화나 전설을 살펴보면 아이디어의 원형이 되는 생각을 항상 찾을 수 있다. 웨어러블 로봇은 다르다. 중국 신화의 추일화 **멀리 빠르게 갈 수 있는 신발**, 그리스

신화의 탈라리아 **전령신 헤르메스의 날개 달린 신발** 등을 빼면, 물건을 입거나 부착해 신체 능력을 강화한다는 생각을 찾을 수 없다. 웨어러블 로봇은 기술 발달로 태어난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반한다.

죽음의 계곡에서 되돌아온 웨어러블 로봇

새로운 아이디어가 살아남긴 쉽지 않다. 아무리 좋아도 실현될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거의 50년간 묻혀 있던 이 개념은 1950년대 들어와 미국과 소련에서 우주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우주복을 개발하다가 되살아나게 된다. 현실 우주복에 채택되진 못했지만 SF 작가들에게 영감을 줘서 신체 강화 전투복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웨어러블 로봇의 원조라고 불리는 소설 <스타쉽 트루퍼스>(1959), 만화 <아이언맨>(1963) 같은 작품이 그래서 태어났다.

실제 웨어러블 로봇 제작에 도전하기도 했다. 최초의 산업용 로봇이 등장한 이후 산업용 로봇 붐이 불면서 1965년 시작된 하디맨 **Hardiman**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하디맨은 너무 크고 무겁고 위험했다. 이후 작은 혁신 및 도전이 있었지만, 사실상 웨어러블 로봇은 콘텐츠 속에서만 존재하는 장치였다. 21세기가 되기 전에는 말이다.

진짜 웨어러블 로봇은 21세기에 등장했다. 먼저 2000년 미국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전문 업체 사코스 **Sarcos Technology and Robotics**에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었다. 2001년에는 1990년 후반에 등장한 체중 지지 러닝 머신 훈련 **BWSTT**을

기반으로 로코맷(Lokomat)라는 보행 재활 웨어러블 로봇이 출시됐다. 같은 해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선 군용 강화 외골격 슈트 개발 지원을 시작했다. 이런 흐름 속에 2010년대부터 보행 보조나 재활 훈련에 쓰이는 웨어러블 슈트가, 2010년대 중반부터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한 개발 과정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용도가 증명된 분야는 크게 3가지다. 하나는 의료·재활용이다. 허반신 마비나 걷기 훈련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에서 시작해 상반신이나 손목, 발목 등 다양한 개별 신체 부위에 쓰고 있다. 두 번째는 산업용으로, 자동차 조립을 비롯해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등 힘들고 다치기 쉬운 일을 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된다. 비교적 가볍게 쓸 수 있는 수동형 로봇이 많이 쓰이는 분야다. 마지막으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분야는 스키나 트레킹 같은 취미 활동을 위해 쓰인다.

웨어러블 로봇의 3대 용도

어떤 이들은 웨어러블 로봇의 발전이 왜 이리 더디냐고 묻는다. 아이디어가 나온 지 120년, 상용화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널리 쓰이지 않는 탓이다. 굳이 평계를 대자면 웨어러블 로봇은 첨단기술의 산물이라서 그렇다. 안에 들어가는 모터, 액추에이터, 감속기 같은 부품을 비롯해 로봇을 움직이는 알고리즘, 피드백을 위한 센서, 제어를 위한 반도체, 만드는 소재와 배터리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그나마 로봇 산업과 전기 자동차, 스마트폰



기술이 진화하면서 관련 기술을 응용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됐지만, 남은 문제가 또 있다. 사람이 직접 입고 쓰는 제품이라 관련 규제를 통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료·재활에 쓰이는 웨어러블 로봇은 의료 관련 허가를 다 받아야 병원에서 쓸 수 있다. 사람 신체도 제각각이라 표준화된 제품을 쉽게 만들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 만들기 힘들다 보니 가격이 꽤 비싼 것도 걸림돌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웨어러블 로봇은 이미 상용화된 제품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곳에서 이용한다.

레크리에이션: 올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분야다. 아크테릭스에서 개발한 하이킹용 바지 'MO/GO' 때문이다. 제조사는 이 바지형 웨어러블 로봇을 입으면 다리 근력을 최대 40% 강화해 덜 피곤하게 하이킹을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CES 2024>에 출전해 주목받은 한국 위로보틱스의 착용형 보행보조 장치 WIM도 마찬가지다. 허리와 허벅지에 장착하는 이 제품을 이용하면, 근력을 강화하거나 반대로 더 쉽게 걸을 수 있도록 도

와준다.

가장 유망한 곳은 스키용 외골격이다. 스키를 탈 때 다리에 장착하는 이 제품은 부상 위험을 낮추고 피로를 줄이는 데 꽤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 더 비싼 제품의 경우 무릎이 아픈 사람도 스키를 탈 수 있고, 하지 마비 환자도 도우미가 있으면 스키를 탈 수 있게 해준다. 아직 인기를 얻고 있다고 말하긴 이르지만, 스키용 웨어러블 로봇이 대중화된다면 다른 스포츠용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산업·물류: 한국 대기업이 많은 관심을 두는 분야다. 근력 보조 로봇이라고도 불린다. LG 전자에선 클로이 수트봇을 공개한 바 있고, 현대자동차 로보틱스랩에선 기존에 공개했던 시제품 벅스를 개량한 엑스블 솔더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주로 머리 위로 손을 올려 작업해야 하는 작업자를 보조하거나, 허리 굽혀 물건을 들거나 하는 힘들고 피곤한 작업을 지원한다. 사실 다양한 작업만큼이나 다양한 스타일로 쪼개져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의자가 없는데도 의자가 있는 것처럼 앉을 수 있게 해 주는 제품이나, 오랜 작업에도 손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는 파워 글로브, 무거운 도구를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제품 등이 있다. 생산성 향상 및 직업 만족도 향상, 작업 안전성 향상,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눈에 띄는 효과를 가졌기에 가장 많이 도입을 검토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군대에서도 전투용 웨어러블 로봇 도입은 늦었지만, 작업용 웨어러블 로봇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의료·재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분야

다. 한 사람의 삶을 극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사이베슬론에서 우수한 웨어러블 로봇이 여기에 속한다. 주로 보행보조 제품이 많지만, 상반신 재활 및 손목 재활 등 다양한 용도의 제품이 나와 있다. 어린이나 노인을 위한 제품, 고정용이거나 이동식 제품 등 형태도 다양하고 가장 최신 기술이 집약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다만 규제가 가장 심하고, 제품 가격이 가장 비싼 분야이기도 하다. 다행히 최근 미국에선 연방건강보험 프로그램(메디케어)의 규칙을 변경해 특정 외골격형 장치를 보조기로 분류, 메디케어 보장 범위 안에 넣었다. 보행보조·재활용 웨어러블 로봇이 길게 봐서 휠체어를 대체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고비를 넘었다고 봐도 좋겠다.

웨어러블 로봇은 언제 대중화될까?

웨어러블 로봇의 가능성과는 별개로 관련 시장은 매년 아쉬움을 남긴다. 시장 보고서마다 곧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10조 원 규모가 될 거라고 말하지만, 달성할 수 있는 연도는 매년 뒤로 밀린다. 이는 아직 웨어러블 로봇 보급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는 걸 말한다. 가격을 낮추고 기술을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용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기기를 만들어야 한다. 입는 즉시 직관적으로 '아, 이거 좋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여전히 전망은 밝다고 말한다. 점점 세계 각국이 고령화되면서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런 수요를 빠르게 충족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손자병법과 전승 전략

인적 정보를 활용하라!
선지자승 先知者勝

진정한 승리는 정보에 달려 있다.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고 조언하는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박재희
인문학공부마을 석천학당 원장
동양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인문의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用間

정보가 경쟁력이다

<손자병법> 마지막 13편은 <용간用間>이다. 용간用間은 간첩間諜 운용用이란 뜻이다. 간첩은 적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정보원이다. 정보원을 통해 적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 승리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한산대첩에서 견내량에 나타난 왜국의 선단을 김천손이란 정보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해 학익진이라는 전략을 수립했다. 정보는 적절한 판단과 전략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료다.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중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인적정보다. 적의 상황을 알고 있는 다양한 인적 자원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현재도 가장 믿음만한 정보 획득의 방법이다. 인적 정보원을 간첩間諜이라고 한다. 상대방과 나 사이의 중간에서間에서 첩報報를 나르는 사람이란 뜻이다.

손자는 전쟁의 승패는 결국 정보에 달려 있다고 했다. 훈련된 병사와 날카로운 무기가 넘쳐나도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것이다. 10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전쟁을 하려면 엄청난 군비가 들어간다. 군량과 무기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쟁 기간에 경제가 멈추고 백성들의 불만은 고조된다. 일반백성들은 병사로 징집되거나 전쟁물자 수송에 동원돼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과 인원을 동원해 전쟁을 하는데, 그 결과는 하루의 전투에서 승패가 결정 난다. 그러니 비용과 보상이 아까워서 정보원을 얻지 못해 결국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정보를 얻기 위해 돈과 지위를 아끼지 말고, 노력과 수고를 걱정하지 말라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손자병법의 경고다.

선지자^{先知者}가 되어라!

<손자병법>에서 승리하는 조직은 군주와 장군이 선지자^{先知者}라고 한다. 먼저^先 상대의 정보를 알고^知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장군은 힘과 용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벌어질 위기를 다양한 정보를 통해 미리 알고, 대책을 세워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이다. 무협지에서 보는 힘센 장군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일 뿐, 실제 전쟁에서 장군은 정보를 기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조정하고, 위기에 대응하고, 생존의 전략을 세우는 사람이다. 손자는 군주와 장군은 정보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병사들의 장군이 될 수 없고^{非人之將也, 비인자장야}, 군주의 참모가 될 수 없고^{非主之佐也, 비주지좌야}, 승리의 군주가 될 수 없다^{非勝之主也, 비승지주야}, 현명한 군주와 능력 있는 장군이^{明君賢將, 명군현장} 군대를 움직이면 승리하고^{所以動而勝人, 소이동이승인}, 그 승리가 일반인보다 출중한 것은^{成功出於衆者, 성공출어중자}, 정보를 먼저 획득했기 때문이다^{先知, 선지}.”

선지자는 어떻게 정보를 획득해야 하는가? “귀신에게 묻지 마라! 보이는 대로 믿지 마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라^{必取於人, 필취어인}.” 손자는 정보를 귀신에게 점을 쳐서 물어보고, 주관적 경험에 의존하여 언던 관습을 비판하며 철저하게 인적정보를 통해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원의 5가지 유형

정보원은 5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향간^{嚮間}이다. 향간은 적진에 사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정보의 수준은 낮으나 획득하는 것은 쉽다. 향간이 보내온 정보만 잘 모아도 적의 대체적인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는 내간^{內間}이다. 내간은 적의 중요 인물을 포섭하여 나의 정보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간을 포섭하기 위해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많은 뇌물을 주기도 한다. 내간으로 적합한 자는 돈과 여자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나, 능력에 걸맞은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자, 벌을 받고 근신 중인 자들이다. 셋째는 반간^{反間}이다. 반간은 적의 간첩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적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상대의 오판을 유도하거나, 적의 간첩을 내 편으로 만들어 역정보를 흘리는 이중간첩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넷째는 사간^{死間}이다. 죽기를 각오하고 적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간첩이다. 자신의 몸을 바쳤기에 돈이나 지위로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이 아니다. 적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간^{生間}이다. 적진 깊숙이 침투해 살아서 적의 정보를 갖고 돌아오는 간첩이다. 수시로 적과 아군 사이를 오가야 하기 때문에 생존력이 뛰어나고 담력이 출중한 사람 중에 선발해야 하며, 많은 돈과 지위로 아낌없이 보상해야 한다. 이

先知者

렇게 귀신같이 적의 정보를 획득하는 전략을 신기^{神紀}라고 하며, 이런 신기의 정보를 군주의 보물^{人君之寶, 인군보}이라고 한다. 군대를 운영할 때 간첩에게 가장 친밀하게 대해야 하고, 가장 많은 보상을 해야 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정보를 장악한 리더의 역할이다.

얻을 것이 없으면 싸우지 마라

전쟁은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죽고 살고, 조직의 흥망이 결정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손자병법>은 이익과 소득이 있을 때 싸우고, 위기가 닥쳤을 때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노와 감정으로 함부로 군대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익이 없으면 군대를 움직이지 마라^{非利不動, 비리부동}, 얻을 것이 없으면 군대를 운용하지 마라^{非得不用, 비득불용}, 위기가 아니면 싸우지 마라^{非危不戰, 비위부전}. 군주는 화가 나서 군대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 장군은 분노하여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현명한 군주는 전쟁을 신중히 결정하고, 뛰어난 장수는 전쟁을 경계한다. 이것이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군대를 완전하게 유지해 국가와 국민을 보전하는 길이다. 손자병법은 싸워서 이기는 조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조직이 결국 완전한 승리, 전승^{全勝}의 조직이라고 강조한다. 상생과 공존의 전쟁 철학인 전승^{全勝} 철학은 손자병법이 이 시대에도 꾸준히 읽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우리 기업 주식가치 평가하는 방법

법인형태로 중소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식과 관련해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고는 한다. 주식은 기업가치를 반영하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세법 등의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증자, 양도, 증여 등)을 할 때는 반드시 세법상의 주식평가액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족 간에 주식을 이전할 때 세법상의 시가와 차이가 난 경우에는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세법상의 주식평가법

세법상 법인의 주식은 크게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시가를 알기가 쉽다. 현행 세법은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평가일 전후 2개월(4개월)간의 증가를 평균해 이를 시가로 보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므로 대부분 아래와 같은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한다. 물론 비상장주식이라도 시장 외에서 거래될 수 있는데, 이때 거래된 가격이 정당하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도 있다(매매사례가격). 다만 감정평가액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

현직 세무사로 20년 넘게 개인과 기업 고객에 대한 각종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세무 가이드북> 등 80여 권의 저서가 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증권거래법상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순이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2:3)로 가중평균해 주식을 산정한다.

$$1\text{주당 평가액} = (1\text{주당 순이익가치} \times 3 + 1\text{주당 순자산가치} \times 2) / 5$$

* 1주당 최근 3년간 순이익액의 가중평균액 ÷ 10%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 총수

그런데 이 식의 적용과 관련해 미리 정리해둘 것들이 있다. 첫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자산 중 부동산이 50% 이상인 법인)은 가중평균을 2:3으로 한다. 부동산의 가치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그렇다. 한편 이러한 법인의 부동산은 감정평가로 평가한 후 주식가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둘째,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에 미달한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평가액으로 한다(최소 평가 기준).

• 비상장주식 평가액 = Max[1주당 평가액,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

예를 들어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1만 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가 2만 원이라면 2만 원의 80%인 1만 6,000원이 주식평가액이 되는 것이다.

셋째, 부동산 보유비중이 80% 이상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이 경우 가중평균을 하지 않는다.

넷째,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적용되는 20% 할증평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025년부터 대기업의 주식도 할증평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장주식평가방법요약

구분	1주당 평가액	비고
일반법인	(1주당 순이익가치×3 + 1주당 순자산가치×2)/5	Max[가중평균 평가액, 순자산가치의 80%]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1주당 순이익가치×2 + 1주당 순자산가치×3)/5	
3년 미만,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인 법인 등	순자산가치	가중평균하지 않음.

적용 사례

어떤 법인에서 최근 3년간 이익이 매년 5억 원씩 발생했다고 가정한다. 또한 재무상태표상의 부동산은 시세를 반영하고 있고, 이 기업의 발행주식 수는 10만 주라고 한다면, 이 법인의 주식은 얼마로 평가될까?

자산		부채	
현금·예금	5억 원	차입금	15억 원
재고자산	20억 원	자본	
건물 등 부동산	40억 원	자본금 등	50억 원
계	65억 원	부채와 자본 계	65억 원

첫째, 1주당 순이익가치를 계산해 본다.

자료상의 매년 5억 원의 순이익을 10만 주로 나누면 매년 1주당 순이익액은 5,000원이 나온다. 세법은 1주당 순이익가치를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이익을 가중평균한 후 10%로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면 다음과 같이 1주당 순이익가치는 5만 원으로 계산된다.

- 1주당 가중평균 순이익액 = [(5,000원×3) + (5,000원×2) + (5,000원×1)] × 1/6 = 30,000원 × 1/6 = 5,000원
- 1주당 순이익가치 = 5,000원 × 10% = 50,000원

둘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해 본다.

이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사례에서는 부동산이 시가로 반영돼 있으므로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은 50억 원이 된다. 따라서 이를 10만 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가치는 5만 원이 된다.

셋째, 이 둘을 가중평균해 본다.

1주당 순이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했다면 다음과 같이 1주당 주식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인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므로 가중평균 시 2:3의 비율을 사용한다.

- [(50,000원×2) + (50,000원×3)] × 1/5 = 250,000원 × 1/5 = 50,000원

넷째, 위의 가중평균액에 대해 최소 평가 기준을 적용해 최종 주식가격을 정한다.

세법은 가중평균에 따라 계산된 주식가격이 최소한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사례의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는 5만 원이고 이의 80%는 4만 원이므로 앞에서 계산된 5만 원이 1주당 주식가격이 된다. 따라서 사례의 총 주식가치는 다음과 같다.

- 총 주식가치 = 10만 주 × 5만 원 = 50억 원

BOSS



직원 퇴직 시 주의할 점은 무엇?

최근 중국집에서 3일 일하고 퇴직하면서 무려 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직원이 있어 화제다. 물론 불합리한 청구라 대부분 기각됐지만 중국집이 입었을 상처는 작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렇듯 근로관계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중요한 법. 직원의 퇴직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장내석
노무법인 예담HR컨설팅
노무사
노동법률 전문가로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기업들의
인사평가나 보상설계와
같은 HR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Q. 직원이 퇴사할 때는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나?

아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메일이나 문자, 카톡 심지어 구두로 “저 이번 달까지만 다니고 그만둘게요”라고 전해도 된다. 보통 팀장이나 인사팀에서 퇴직자 면담을 하면서 왜 퇴직하는지 퇴직 사유를 묻기도 하는데, 이걸 직원 고충 등을 조사해 향후 다른 직원들이 퇴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도 근로자는 반드시 그 이유를 말할 필요는 없다.

Q.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가끔 핵심 인재 같은 꼭 필요한 직원이 퇴직하려 할 때 회사에서 사직서를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기도 한다. 사직서를 회사가 승인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관련 특약이 없다면 사직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령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의 임금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직원이 11월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당기 후 임금지급기(12월1일~31일)가 지난 다음 해 1월 1일자로 사직한 셈이 된다.

Q.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라고 하는데 평균임금에는 수당들도 들어가나?

평균임금에는 고정적 수당뿐만 아니라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같은 변동적인 수당도 모두 포함된다. 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출장비나 주재수당 같은 실비변상적인 금품이나 명절 차례비, 휴가비, 생일축하금 등 근로와는 상관없이 지급하는 은혜적 금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금품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성과급에는 개인성과급과 경영성과급이 있는데, 개인성과급은 개인의 실적에 기반해 사전에 정해진 지급 공식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퇴직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본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에게 “1인당 매출 1억 이상을 하면 그 초과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회사 규정에 정해져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성과급은 특정 개인의 실

적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실적에 기초해서 지급되고 지급률도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Q. 퇴직할 때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손해배상은 해당 직원에 의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가능하다. 물론 그 손해 여부는 회사가 입증해야만 한다. 무조건적인 위약금 예정계약은 불법이며, 통상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했다고 회사에 물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다. 하지만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갑자기 퇴직을 해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Q. 퇴직할 때 연차 남은 게 있으면 다 쓰고 퇴직하라고 해도 되나?

연차휴가는 임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권리다. 퇴직할 때 연차를 다 쓰는 것도, 안 쓰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다. 임금이 연차를 쓰고 퇴사하면 그만큼 해당월 임금이 증가해 연차수당과 동일하므로 굳이 연차를 쓰고 퇴사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다.

Q. 계약직으로 5년 동안 계속 계약을 갱신했는데, 올해는 해당 직원의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퇴직하라고 할 수 있나?

물론 계약직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 하지만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중에는 맘대로 퇴직하라고 할 수 없으며, 계속적으로 계약이 갱신됐으면 지난번에는 갱신됐는데 왜 이번에는 갱신되지 않는지에 대해 회사가 입증해야 한다. 또한 노동법상 계약직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2년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퇴직하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만 55세 이상 등 2년을 초과해 계약직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약갱신대권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년 업무평가, 건강검진 등을 통해 계약이 갱신되는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중국 ‘자수성가의 신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자수성가 신화의 주인공,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중국 IT 산업의 부흥을 이끈 그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자.

어린 시절, 공부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마윈은
삼수 끝에 항저우 사범대에 정원 미달로 입학했고,
졸업 후 1988년에 영어 강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자, 따라해 보세요 A!

마윈은 1992년 중국 내에서
영어 번역 서비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고,
퇴직한 영어 교사들로 구성된
하이보 번역사를 설립하며 첫 창업에 나섰다.

하이보 번역사

1995년 시애틀을 출장에서 인터넷 비즈니스를 처음 접한 마윈은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어디든 쇼핑할 수 있더니...
바로 이거다!

1999년, 마윈은 50만 위안으로 알리바바를 창업했다.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루었던 삼장법사의
인재 경영 전략을 알리바바 경영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인재 중심의 경영 방침을 세우고 회사를 성장시켰다.

뚜렷한 비전과 목표!

마윈은 컴퓨터에 문외한이었지만, 서민들의 생활을 잘 알았다.
그는 이 점을 비즈니스에 적용해 알리바바에서 서민들의
목소리와 필요를 반영한 전략을 펼쳤다.

서민들이 더 쉽게 인터넷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어.

마윈은 중국의 인터넷 쇼핑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점을 파악하고,
메신저를 통해 판매자와 실시간 상담하며
구매할 수 있는 채팅 구매방식을 도입했다.

이 제품 아직 재고가
남아있나요?

물론이죠. 고객님의!

마윈은 소비자와 소규모 기업들이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러한 접근은 알리바바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기술혁신을 이끌며 알리바바를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벗어나 금융, 물류,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시켰다.
특히 알리페이의 출시는 알리바바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와 기업들이
금융 거래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Alipay

2014년 알리바바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며 세계 최대 IPO를 기록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급등했고, 시가총액 2,130억 달러를 기록하며
알리바바는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도약하게 됐다.

2019년, 마윈은 알리바바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교육,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에
더 집중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그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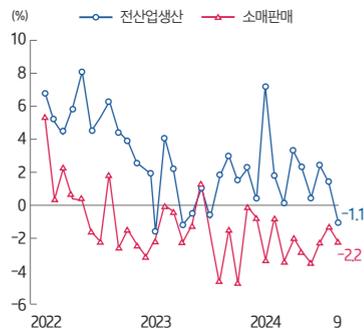
마윈은 알리바바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킨 혁신적 리더로,
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사회적 책임감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며,
앞으로도 그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은 꿈을 꾸면
작은 성공을 이루지만,
큰 꿈을 꾸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눈에 읽는 경제 동향

KOREA

산업활동



9월 생산·소비 동반감소

9월 산업생산은 제조업(-1.4%, 전년 동월 대비)과 서비스업(-0.2%) 생산이 모두 감소했고, 특히 증가세를 지속했던 반도체 생산(-3.0%)도 감소 전환됐다. 내수 부문은 소매판매(-2.2%)가 7개월, 건설투자(-12.1%)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한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면서 6.1% 증가했다.

물가, 안정 흐름 지속

10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하락폭 확대,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세 둔화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3% 상승하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축소(1.8→1.7%)되면서 뚜렷한 물가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 두바이유 가격(\$/배럴): 93.3(2023.9)→89.8(10)→74.9(2024.10)

Exchange Rate

달러/원 환율 동향



11월 환율은 약 2년 만에 1,400원 돌파

(2024년 11월 1일 1,379.3원→11월 11일 1,385.4원→11월 18일 1,402.8원)

10월부터 이어진 미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과 트럼프 트레이드, 중동발 긴장 확대는 위험 회피 심리를 자극해 달러/원 환율을 끌어올렸다. 11월 초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던 환율은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급등하기 시작해 1,400원을 돌파했다. 고공행진하던 환율은 11월 8일 FOMC에서 25bp 금리인하가 결정되고 파월 의장이 선거결과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잠시 1,380원대 중반으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1,400원대로 상승했다.

2024년 4분기 말 환율 전망은 1,362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4년 4분기 말 달러/원 환율 전망은 평균 1,362원으로 조사됐다. 1,358원 이상 1,385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4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4년 10월 17일~11월 15일

원/100엔 환율 동향



원/유로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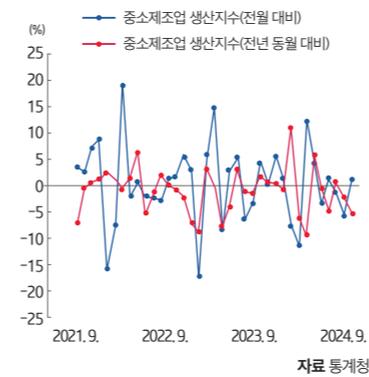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Small Business Trends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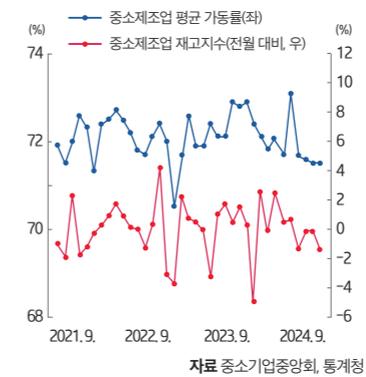
생산, 전월 대비 증가

2024년 9월 중소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1%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5.0%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기계장비(6.4%), 전자부품(4.7%), 의료정밀광학(6.3%) 등에서 증가했으며, 전월 대비 감소한 업종은 반도체(-2.6%), 비금속광물(-9.6%), 기타운송장비(-11.3%) 등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의약품(21.0%), 통신·방송장비(10.1%), 의료정밀광학(5.2%)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장비(-15.3%), 반도체(-3.0%), 1차금속(-5.0%)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가동률 및 재고



가동률, 전월 수준 유지

2024년 9월 중소기업 전체 평균 가동률은 전월 수준을 유지해 71.5%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0.1%포인트 감소한 67.9%, 중기업(50인~299인)은 전월과 동일한 75.4%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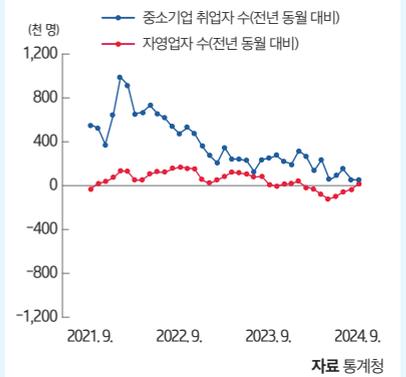
* 2023년 1월 조사부터 신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024년 9월 중소기업 재고는 전월 대비 1.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1차금속(2.4%), 화학제품(3.1%), 자동차(0.8%) 등에서 증가했으나, 통신·방송장비(-30.6%), 반도체(-6.5%), 전자부품(-11.4%)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고용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4년 9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1,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3만 6,000명이 증가한 반면,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1만 5,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566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4년 9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2,000명이 증가해 575만 1,000명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ESG-산업안전 자가진단 Tool' 출시 안내

'ESG-산업안전 자가진단 Tool'이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등 사업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산업안전 요소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진단 및 개선방향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무료 온라인 툴(T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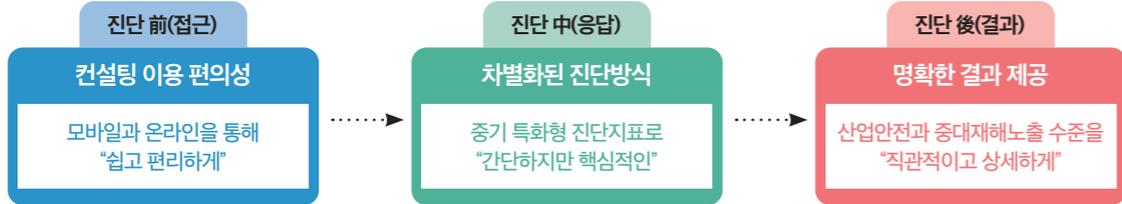
필요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보유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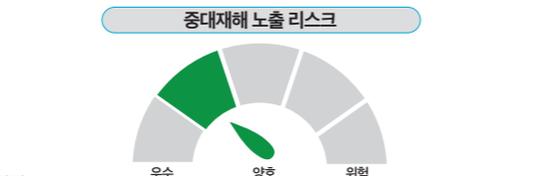
주요 특징

사업장 산업 안전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①컨설팅 이용이 편리하고 ②진단은 차별화되며 ③명확한 결과를 제공하는 온라인 기반의 컨설팅 제공



- 접근** [편의성]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
[확장성] 진단 후 ESG자가진단으로의 연결을 통해 기업 ESG전체를 관리 가능
- 진단** [전문성] 반드시 관리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전문 컨설턴트가 엄선 (5개 분야, 30개 지표)
[차별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수준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대재해 노출 리스크** 확인 가능
- 결과** [결과보고] 산업안전 관리 포인트 및 개선방향을 담은 유료컨설팅 수준 보고서 제공
[수준비교] 동일 업종 내 해당 기업의 ESG산업안전 수준 비교 (평균, 최고·최저점 대비)



* (5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이행, 안전보건교육,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재해관리
** (중대재해 노출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기업의 대비 수준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위험', 5등급으로 분류



* ESG BOX 비회원인 경우 회원가입을 위한 자가진단 이용 메뉴얼 참조 안내 필요(메인화면 우측 하단)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878호(2024.11.20) 유효기간(2025.11.1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외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은행이니까 유언도 믿고 맡깁니다

지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객과 기업 곁을 지켜온 IBK기업은행
그 변치 않는 믿음을 알기에 인생의 마지막, 소중한 유산까지 맡기고 싶습니다

믿음직한 상속으로 내 뜻을 지켜주는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



믿을 수 있는 국책은행
63년 역사의 국책은행으로 정기간 신뢰할 수 있는 계약관리

내뜻대로 상속설계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상속 설계

간편한 신탁계약
형식이 엄격한 유언장 대신 신탁계약 체결만으로 유사 효과

안정적인 상속집행
신탁 전문가와 함께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상속 집행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6308호(2024.10.25) 유효기간(2025.10.24),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4-04197호(2024.10.16~2025.10.15) ※자세한 문외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신탁계약)에 대하여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금융상품(신탁계약)은 자산가액 변동,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IBK 내뜻대로 유언대용신탁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류분 청구권이 보장됨에 따라 유류분 침해나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상품(신탁계약)의 기본계약보수는 신탁원본의 0.5%, 집행보수는 신탁원본의 0.2~0.8%, 운용보수는 운용자산별 상이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